

대대장역을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.

S#3.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차 안

김 대위 : (의아해하는 말투) 왜 갑자기 차를 세우십니까?

대대장 : (하품을 하면서) 아우~~ 끝나고 밥 먹으니까 조금 졸려서 그래... 잠만 쉬다가 출발하자. 괜찮지? 김 대위?

김 대위 : (고개를 갸우뚱하며) 알겠습니다..

몇 초의 정적 후 갑자기 김 대위의 몸을 자신의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대대장

대대장 : (김 대위를 바라보며) 김 대위, 날도 추운데 일로 좀 와. 사람이 붙어있어야 안 춥지(대사를 말하면서 김 대위의 허리를 잡으며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.

김 대위 : (비명을 지르며) 왜 허리를 끌어안으십니까? 이러지 마십시오.

대대장 : (김 대위를 끌어당기며) 이리 좀 와봐~! 내가 자기 아프니까 추울까봐 좀 따뜻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?

S#5. 조사실

조사실 안에 앉아 있는 대대장.

경찰 (목소리나, 뒷모습) : 왜 그러셨나요?

대대장 : (억울한 말투) 제가 성추행이라뇨?

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. 이거 다 모함입니다.

뭐 알려주고, 도와주다 보면 손도 닿을 수 있는 거고 그런거지 뭐! .

상관으로써 부하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다 아끼는 마음으로..

등 두들겨 주고 뭐.. 격려해 준겁니다.

허물없이 부대원들 대하고 싶어서 그런건데.. 그 정도도 못합니까?

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지 어떤지 말 안하면, 제가 어떻게 압니까?

그리고.. 차안에서 있던 일은.. 그날 김대위 저녁 먹자고 했을 때도 따라왔고,

차에도 본인 스스로 탄거예요. 그래서 김 대위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.

싫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하던가요!! 왜 이제와서 이러는 겁니까?